



즉시 배포용: 2022년 2월 2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석유 및 천연가스 부문의 메탄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최종 규제안 발표

유정 및 천연 가스정, 압축 스테이션 및 기타 공급원의 새로운 배출량 제어, 공중 보건 및 기후 변화 방지 기능 제공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뉴욕을 선도하는 기후법 지지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뉴욕주의 석유 및 천연가스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메탄과 기타 유해 배출량을 대폭 줄일 것을 요구하는 규제를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규제안은 메탄 배출량을 연간 14,000 미터톤 이상,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량을 연간 2,000톤 이상 줄임으로써 주정부 주도의 청정 에너지 및 기후 의제를 실현하는 이정표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이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 야심적이고 역사적인 전환을 계속함에 따라, 우리는 기후 변화에 기여하고 우리 지역사회의 공중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석유 및 가스 인프라로부터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최종 확정하면 뉴욕의 석유와 천연가스 시설의 유출을 줄일 수 있고, 우리 주를 기후 행동의 최전선에 서게 할 것입니다."

주 환경보전부(DEC)가 오늘 최종 확정된 이 규제안은 메탄 누출과 환기 장치의 유해 배출을 규제하고 통제함으로써 기후 위기를 해결하려는 뉴욕시의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메탄은 대기 중 부피가 크고 강한 방사 효과 때문에 이산화탄소에 이어 기후 변화에 기여하는 두 번째 요인입니다.

DEC의 Basil Seggo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각 주가 온실가스를 의미 있게 감축하고 공중 보건과 천연 자원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완화하는 데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보여줍니다. DEC의 전담 직원은 오늘 확정된 규제안에서 화석연료 인프라에 대한 요구 사항 개발을 포함하여 모든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뉴욕은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으로 더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경제를 지향하고 있으며 화석 연료 산업에 배출량을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는 117개의 압축기, 27개의 지하 천연가스 저장원 및 3,000개에서 4,000개로 추정되는 계량소가 있는 32개의 허가된 압축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2018년에 뉴욕주의

3,411개의 활성 유정과 6,729개의 활성 가스 유정에서 106억 입방 피트의 천연 가스와 224,717 배럴의 석유가 추출되었습니다. 오늘 확정된 조치는 자동차 23만 대 이상의 운행을 중단하는 것과 맞먹는 120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킴으로써 석유와 가스 부문에서 메탄 배출량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종 규제안은 유정, 압축 스테이션, 저장소, 계량 및 조절소 등에서 천연가스를 대기로 배출하는 것을 상당히 줄이고 많은 경우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안된 규제안에는 석유 및 가스 인프라에 대한 엄격한 누출 감지 및 수리 요구 사항과 제어 및 운영에 대한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종 규제안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메탄과 다른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뉴욕의 최근 조치입니다. 2020년 12월, DEC와 NYSEERDA는 환경 속으로 [메탄을 유출하는 버려진 수십 년 된 유정 및 가스정 위치를 찾아 폐쇄하기 위해](#) 첨단 항공 감시 장비를 곧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작년 말 확정된 규제안](#)은 수입 전기 및 화석 연료와 관련된 배출량을 포함하여 메탄과 기타 온실 가스의 주 전체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85% 감축하도록 요구하는 한계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DEC는 이 규제안을 시행하기 위해 검사를 실시하고, 잠재적 위반 사항을 평가하며,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DEC는 이 규칙과 일치하는 전국적인 배출량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월 31일에 미국 환경 보호국의 제안된 석유 및 가스 규칙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뉴욕 주의 규정을 반영하도록 이러한 규칙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뉴욕주의 국가 주도적 기후법

뉴욕주의 국가 선도 기후 의제는 국내에서 가장 적극적인 기후 및 청정 에너지 이니셔티브이며, 뉴욕주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회복하는 가운데 질서 정연하고 공정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촉구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친환경 경제를 강화합니다. 기후 리더십 및 지역사회 보호법을 통해 제정된 법에 따라 뉴욕은 2030년까지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량 70% 달성 등 2040년까지 발전 부문에서 배출가스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필수 목표를 달성하고 경제 전반에 걸쳐 탄소 중립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 전역 대규모 재생 에너지 및 송전 프로젝트 102개에 대한 330억 달러의 투자, 건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68억 달러의 투자, 태양 에너지 확대를 위한 18억 달러의 투자, 친환경 교통 이니셔티브를 위한 10억 달러 투자, NY Green Bank 방침에 대한 16억 달러 투자 등을 비롯하여 청정 에너지를 촉구하기 위한 뉴욕의 전례가 없는 투자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러한 투자로 2020년 뉴욕주의 청정 에너지 부문에서 거의 15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2011년 이후 태양광 부문에서 2,100% 성장했으며, 2035년까지 연안 풍력발전으로 9,000 메가와트를 생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후법(Climute Act)에 의거, 뉴욕은 이러한 발전을 바탕으로 2050년까지 1990년 수준의 85%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한편, 청정 에너지 투자 이익의 40%를 목표로 하고 최소 35%를 소외된 지역사회에 혜택을 주고, 현장 에너지

소비를 185조 BTU로 감축하겠다는 주정부의 2025년 에너지 효율성 목표 달성에 다가갈 계획입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